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2. 7. 29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2. 7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14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해상특송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 2 인천항~동남아시아 '22년도 6번째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 3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준공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국지적인 봉쇄 및 기상악화 영향으로 항만 적체 재심화
- 2 미국, 노사갈등과 철도노조 파업, 공급망 위기 심화 전망
- 3 유럽, 항만 파업으로 인해 항만 적체 가중 우려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환경부, 시멘트 업계와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
- 2 국내 고철 가격 13주간 32.4% 감소
- 3 철강 수요산업, 하반기 산업별 흐름 다양화 예상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해상특송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¹⁾

- '22년 5월 누적 기준 부산항 해상특송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8%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및 해외 직구 수요 증가로 국내 해상특송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산항은 지난 '21년 9월 용당세관에 해상특송 화물 전용 통관장을 정식 개장함
 - 특송화물은 일반화물과 달리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및 검사·감정·검역 절차 없이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X-ray 검사만으로 반출이 가능함
-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해상특송 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보여짐
 - 올해 1월 7일, 부산항만공사(BPA)·부산시·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산항 해상특송장을 이용하는 업체에게 1TEU당 8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7월 6일 3개의 특송업체에게 3,17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
- BPA는 부산항의 해상특송 물동량 증대 및 전자상거래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외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힘
 - 한편, '21년 기준 국내 해상특송 물동량은 평택·당진항(56%)과 인천항(43%)에서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부산항은 0.9%로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② BPA, 국내 최초 민간 공동 해외항만운영사업 참여²⁾

- BPA는 이라크 알포항(Al Faw Grand Port)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업 참여를 위해 대우건설, SM상선 경인터미널과 함께 K-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함
 - 알포항은 현재 50개 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알포항 그랜드포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단계로 대우건설이 5개 선석(2만 3천 TEU급)을 개발 중임
 - 해당 5개 선석에 대한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K-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참여사간 협약을 체결함
- K-컨소시엄은 연내 터미널 운영사업 참여 제안서를 이라크 측에 제출할 예정이며 해외항만운영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국내 항만 연관산업들의 이라크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BPA는 해당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항만분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부산항이 글로벌 선도항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7.08.),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796>(2022.07.18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7.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817>(2022.07.18 검색)

이라크 알포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업 대상지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7.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817>(2022.07.18 검색)

2) 인천항

① 여객터미널 누적 이용객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1만 3천 명 기록³⁾

»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여객터미널을 통해 섬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5월 연안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한 11만 8천 명을 기록함

- 지난 5월 연안여객 중 비 도서민 비율은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77%로 나타남, 이와 같은 관광 수요 증가로 5월 누적 연안 여객수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19.5%)으로 증가함
- 5월 연안여객 증가율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었던 '2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으로 IPA는 '22년 연안여객 100만 명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19년 인천항 연안여객은 100만 3천 명이었으나 '20년과 '21년 모두 76만 명대를 기록하였음

② 인천항~동남아시아 '22년도 6번째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⁴⁾

» IPA에 따르면 인천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신규 컨테이너 노선이 7월 15일부터 운항을 시작함

- 해당노선은 '22년도에 개설된 6번째 컨테이너 항로로 인천항~동남아시아 간의 컨테이너 정기서비스가 36개로 확대됨
- MSC社가 운항하는 신규서비스 노선에는 2,500TEU급 4척의 선박이 투입될 예정이며 연간 약 2만 TEU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서비스는 주 1항차로 인천항~중국(다롄항)~베트남(붕따우항)~태국(람차방항)~말레이시아(탄중펠레파스항)~인도네시아(판장항) 등을 기항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2.6.2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2246&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2022.7.20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2.7.1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2371&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2.7.22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노는부두 ZERO' 정책 성과 발현⁵⁾

- » YGPA는 지난 6일 '22년 상반기 수익실적을 발표했으며, '노는부두 ZERO'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함
- YGPA는 '고객 최우선, 발로 뛰는 영업, 안전항만,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노는 부두, 노는 부지 ZERO화' 정책을 추진해옴
- 특히 올해 1월부터 부두 안전과 화물처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 선박수리가 필요한 선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함
- 그 결과 YGPA는 창립 이후 역대로 가장 많은 총 38척의 수리선박 접안을 허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 예·도선, 대리점 등 지역 해운항만 관련 업체와 선박수리업체들은 올 상반기 동안 약 14억 원의 신규 수익을 창출함
- YGPA는 유류부두에 수리선박 유치로 연간 신규 부가가치창출 30억 원을 목표로 재무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7.06.),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223&category=\(2022.07.18.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223&category=(2022.07.18. 검색))

4) 울산항

① 저속운항 우수 선사·대리점 시상 및 항만정화활동 실시⁶⁾⁷⁾

- » 울산항만공사(UPA)는 6월 14일 울산항마린센터에서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우수 선사·대리점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함
-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UPA에서 6월 운영한 '울산항 탄소중립 및 친환경 실천의 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 '21년 울산항 VSR에 가장 많은 횟수를 참여하여 준수한 선사와 선사대리점을 VSR우수 선사·대리점으로 선정하고 시상했으며 울산항선사협회 및 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와 울산항 VSR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
- » UPA는 노-사-정 합동 항만 정화활동을 실시함
- UPA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울산항 노-사-정 합동 항만정화활동을 6월 16일에 실시함
- 이번 활동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항운노조, 울산항만관리(주)가 참석하여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함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6.14.),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0&dataId=15122\(2022.07.14.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0&dataId=15122(2022.07.14. 검색))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6.16.),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0&dataId=15126\(2022.07.14.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0&dataId=15126(2022.07.14. 검색))



②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준공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신항 남항지구의 보호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를 6월 27일 준공함

-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는 남항부두와 오일허브(2단계)의 안전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해 '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1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약 9년간 총 2,272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됨
- 남항 방파호안의 총 연장은 1.42km이며, 이번 남항 방파호안 준공으로 울산신항 외곽시설(2단계) 총 4개 시설(남항 방파호안, 남방파제 2-1공구, 2-2공구, 2-3공구) 중 2개가 준공됨
- 남방파제 2-2공구 축조공사(1.3km)는 '23년 7월, 2-3공구 축조공사(0.9km)는 '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6.28.),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81407\(2022.07.14. 검색\)](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81407(2022.07.14. 검색))

울산신항 남항지구 방파호안 위치



자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6.28.),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81407\(2022.07.14. 검색\)](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81407(2022.07.14. 검색))

울산신항 남항지구 방파호안 전경



자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6.28.),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81407\(2022.07.14. 검색\)](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81407(2022.07.14.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 개시⁹⁾

»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으로 지정함

* 관리청(국가 또는 시·도)이 아닌자(비관리청)가 항만법령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통상 항만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은 사료의 부원료인 피마자박, 타피오카, 단백피와 우드펠릿 등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화물을 취급함
- 그러나 창고시설 부족으로 야적장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가림막을 덮어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항만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끼침
- 이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됨
- 한편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항만개발사업계획과 자원조달계획, 운영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함
-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은 사업에 대한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3년 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

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06.16.),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6435&boardKey=10&menuKey=971>(2022.07.11.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¹⁰⁾

»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31일까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함

- 수상레저사업장 두 곳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안전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
- 주요 점검 사항은 수상레저 사업장 시설물의 안전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인명구조 장비 적정성, 인명구조요원 배치 및 자격 기준 적합 여부 등임
- 수상레저사업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도 발굴할 계획임

10) 포항해양경찰서 보도자료(2022.07.14.), <http://www.kcg.go.kr/pohangcgs/na/ntt/selectNttInfo.do?nttSn=39157>(2022.07.18.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항, 러시아 여객 수송 2년 8개월 만에 정상화¹¹⁾

- » 지난 7월 8일 오전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따라 동해항을 통한 여객 입국이 가능 해지면서, 이날 오후 러시아로 향하는 국제카페리에 50여 명의 내·외국인이 동해항을 출항함
- 지난 8일 오후 동해항을 출항한 국제카페리인 '이스턴 드림호'에는 자동차 160대, 40피트 컨테이너 3개, 굴착기 10여 대 등의 화물과 50여 명의 여객이 탑승하였으며 9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입항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20일부터 러시아 거주 교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적 귀국 조치함

11) 강원도민일보 (2022.07.08.),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4386>(2022.07.16.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해수청, 신안군 선도 위험 암초에 등대 설치·운영¹²⁾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지도읍 선도항 인근 암초에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도남동방등표'를 새로 설치·운영함
- 해당 등대는 국비 3.3억 원을 투입해 직경 5.7m, 높이 12.8m 규모의 원형 콘크리트구조로, 상단의 등화는 야간에 14km 이상 거리에 있는 선박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음
- 등대가 설치된 해역은 섬으로부터 약 140m 길이로 길게 뻗어있는 수중 암초가 물이 들 경우 눈에 띄지 않아 선도항 입·출항 선박과 선도 인근 해역 운항 선박들의 좌초사고 위험요소로 존재했음
- 이번 항행 여건 개선으로 이 암초 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조업 어선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수선화 섬' 선도에 수선화를 형상화한 등대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6.30.),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81459>(2022.07.11. 검색)



9) 대산항

① 해상 교량표지 9개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¹³⁾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상교량을 통행하는 선박의 안전한 뱃길 조성을 위해 해상 교량표지 특별 안전점검을 2주간(6월 24일~7월 7일) 실시함
- 관내는 지리적 특성으로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이 많아 야간, 새벽 시간대 교량 아래를 항해하는 소형선박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함
- 대산청은 국토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 소형선박의 입출항이 많은 관내 해상교량 9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교량표지의 관리 상태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함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6.23.),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81352>(2022.07.14. 검색)

10) 군산항

① 항로표지 시설 특별점검 실시 계획¹⁴⁾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군산항의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임
- 항로표지는 항해자에게 선박의 위치, 방향 및 장애물을 알려주는 시설로 도로의 교통표지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내에 설치한 국유 항로표지는 유인등대 1기, 무인등대 14기, 등표 60기 등 총 182기임
- 금회 시행되는 특별점검에서는 장마 및 태풍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 62기(무인등대 27기, 등표 35기)에 대한 기능유지 적정성, 시설물 관리 운영상태, 안전시설 보강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2.7.15.), <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81746> (2022.7.22 검색)

11) 마산항

① 모래부두 물동량 및 입지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¹⁵⁾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청)은 지난 6월 23일 ‘마산항 모래부두 물동량 및 입지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용역 결과에 따르면 마산항 내 모래부두 물동량은 '20년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최근 증가세가 크지 않으며, 가포 물양장 건설이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에 미칠 환경적 영향이 크다고 분석함
- 또한 용역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래부두 확장과 현대화를 통해 추후 발생하는 물동량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마산청은 주민과 사업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산 가포신항 모래부두 사업의 백지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할 예정

15) 경남신문(2022.06.26.),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9749>(2022.07.16.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국지적인 봉쇄 및 기상악화 영향으로 중국 항만 적체 재심화¹⁶⁾

- » 중국은 올해 3월 말 두 달간 상하이시 봉쇄를 진행하였으며 봉쇄는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를 진행 중임
 - 오미크론의 하위변위가 발견되면서 상하이 외 중국 남부 광저우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임
- » 지난 11일에는 중국 허난성 우강시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3일간 도시 전체를 전면 봉쇄함
 -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로 도시 전체를 봉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 또한, 중국 북서부 간쑤성의 수도인 란저우에서 확진자 30명이 발생하면서 일주일간 임시 통제관리 조치에 들어감¹⁷⁾
 - 임시 통제관리 조치는 도시 봉쇄 조치가 아닌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조치임
- » 이러한 중국의 국지적인 폐쇄로 상하이시 봉쇄 여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항만에 추가적인 혼잡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더불어 7월 초 발생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닝보, 선전, 홍콩항 등의 선박 운항이 제한되면서 항만 적체가 재심화됨

16) Splash247(2022.07.13.), <https://splash247.com/china-port-congestion-seen-growing-on-back-of-local-lockdowns-and-poor-weather/>(2022.07.18 검색)

17)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2022.07.15.), https://overseas.mofa.go.kr/cn-xian-ko/brd/m_24616/view.do?seq=96(2022.07.18 검색)

2) 아시아

① 일본, 11개월째 무역적자 기록¹⁸⁾

- » 일본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대금 상승으로 지난 6월 기준 11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함
 - 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46.1% 증가했는데 원유,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수출은 광물연료, 철강, 반도체 부품 등의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함
 - 무역적자 규모는 전월 대비 줄었으나 전년 대비해서는 급격히 악화된 수준이며, 올해 3번째 최악의 적자 규모를 기록함
 - 해외 에너지와 식량에 의존하는 일본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인한 수입 비용 급증, 엔화 약세 지속으로 당분간 무역적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18) The japantimes(2022.07.21.),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2/07/21/business/economy-business/trade-deficit-june/>(2022.07.21 검색)

② 인도 자와할랄 네루항,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추진¹⁹⁾

- 자와할랄 네루항은 컨테이너 터미널(JNPCT)의 확장을 위한 민간 입찰 발주를 하였으며, J M Baxi Ports and Logistics Ltd와 CAM Terminals의 합작회사가 낙찰됨
- 자와할랄 네루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총 길이 680m의 2개 선석과 15m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는 54.74ha 규모의 예비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 JNPCT의 확장을 위해 합작회사는 총 872크로어(약 1억 9백만 달러) 수준을 투자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해당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의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8개월이며, 12,200TEU급 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400m의 접안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임
- 또한 2단계도 12,200TEU급 용량의 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280m의 접안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건설 시점은 컨테이너 처리실적 102만 TEU 달성 또는 7년 내 중 빠른 시기에 시작될 예정임
- 자와할랄 네루항의 터미널 확장(업그레이드)을 통해 JNPCT의 총 하역능력은 현재 150만 TEU에서 180만 TEU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③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325만 5천 TEU 기록²⁰⁾

- 치타공 항만의 2021/22 회계연도('21년 7월~'22년 6월) 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총물동량은 3.8% 증가함
- 치타공 항만의 총물동량(2021/22 회계연도 기준)은 1억 1,817만 톤으로 전년 동기간 기록한 1억 1,372만 톤 대비 3.8% 증가함
- 최근 치타공 항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항만물동량 처리량 증가에 힘입어 방글라데시의 지난 회계연도기간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520억 달러를 기록함
- 치타공항만청은 치타공항의 기록적인 '22년도의 성장추세가 추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19) Port technology(2022.07.2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jawaharlal-nehru-port-becomes-first-indian-full-landlord-port/>(2022.07.21. 검색)

20) Container News(2022.7.5.), <https://container-news.com/chittagong-attains-5-box-growth-export-earnings-cross-us52-billion-mark/>(2022.7.22 검색)



3) 미주

① 미국 노사갈등과 철도노조 파업 등 공급망 위기 심화 전망²¹⁾²²⁾²³⁾

- » 미국의 항만과 철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후, 물동량의 급격한 반등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함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미 서부 최대 철도회사인 유니온 퍼시픽과 BNSF는 직원을 감축하고 설비를 축소했으며 항만에서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인건비 축소를 계획함
 - '21년부터 코로나19 엔데믹 도래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물동량이 늘어났으나 항만의 노사협상이 걸림돌로 작용함
- » 미 서부항만노조(ILWU)와 태평양해사협회(PMA) 간의 단체협약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7월 1일 계약이 종료됨

 - ILWU와 PMA는 항만자동화 정책과 임금협상 등의 갈등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달부터 직장폐쇄가 예고된 바 있으나 ILWU가 파업을 유보하고 정상 운영을 결정함
 -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위기를 넘김
- » 다만, 2년간 지속되어온 미 철도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LA항에 적체된 화물로 인해 물류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약 11만 5,000명이 가입된 미국 철도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철도노조는 7월 13일 파업 투표를 시행한 가운데 90%가 찬성함
 - 미 서안항만이 병목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PEB)를 구성하여 진행 중인 협상 해결을 촉구할 방침임

21) Port Technology(2022.07.0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ma-ilwu-contract-talks-roll-on-as-contract-expires/> (2022.07.14. 검색)

22) Splash(2022.07.13.), <https://splash247.com/us-port-congestion-set-to-worsen-as-rail-strike-looms/> (2022.07.14. 검색)

23) 한국경제(2022.07.14.),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147537> (2022.07.14. 검색)



4) 유럽

① 유럽 항만 파업으로 인해 항만 적체 가중 우려²⁴⁾²⁵⁾

- » 독일항만노동조합(Ver.di) 항만노동자 1만 2천여 명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파른 물가상승에 대한 보전으로 시간당 1.2유로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9~10일과 23~24일에 각각 24시간씩 경고 파업함
- 이로 인해 브라케, 브레머하펜, 브레멘, 빌헬름스하펜, 엠덴, 함부르크 등 독일 주요 항만 작업에 차질이 발생함
- 독일 항만운행사중앙협회(ZDS)는 독일로 진입하던 컨테이너 운송의 지연이 증가하였으며, 철도 화물 운송에도 큰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추가 보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힘
- »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러시아행 화물 체류, 중국 항만봉쇄 해제로 인한 물량 증가로 인해 유럽 항만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벨기에 엔트워프-제브뤼헤항 노동조합, 영국 철도해운노동조합 등에서도 파업이 지속되어 유럽 내 공급망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음

24) Reuters(2022.06.22.),
[https://www.reuters.com/article/germany-wages-ports-idUSKBN2030Z6\(2022.07.20. 검색\)](https://www.reuters.com/article/germany-wages-ports-idUSKBN2030Z6(2022.07.20. 검색))

25) 코리아워킹가제트(2022.06.27.),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34725\(2022.07.20. 검색\)](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34725(2022.07.20.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오클랜드항(Port of Auckland), 자동화 터미널 프로젝트 폐기²⁶⁾

- » 오클랜드항은 '16년 시작된 퍼거슨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 프로젝트를 폐기하기로 결정함
- 퍼거슨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확장이나 매립 없이 생산성 및 운영수익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었으나 현재 자동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목표 준공은 '19년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문제로 준공이 2년 연기된 지금도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프로젝트 진행 시 구축된 새로운 부두 및 크레인 등 터미널 운영에 사용되지만,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안내 시스템 개발에 투자된 약 4,200만 달러는 반환될 예정임

26) Port of Auckland(2022.06.08.),
[https://www.poal.co.nz/media-publications/Pages/Ports-of-Auckland-Ends-Automation-Project.aspx\(2022.07.18. 검색\)](https://www.poal.co.nz/media-publications/Pages/Ports-of-Auckland-Ends-Automation-Project.aspx(2022.07.18. 검색))



6) 아프리카

① APM터미널, 탕헤르 메드항(Port of Tangier Med)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투자 결정²⁷⁾

- APM 터미널은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인 메드포트 탕헤르(MedPort Tangier)의 탄소 배출량을 '30년까지 70% 감소시키고 '4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함
- 메드포트 탕헤르 터미널에는 새로운 8대의 전기 안벽 크레인, 28대의 전기 자동화 레일형 갠트리 크레인, 23대의 반자동 하이브리드 셔틀 캐리어와 터미널 자동화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 자동 계류 시스템을 설치하여 선박의 정박, 출항 및 유희시간 감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함
- 또한 정박지의 선박이 온보드 엔진을 사용하는 대신 육상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 98%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27) Africa port(2022.06.13),
<https://africaports.co.za/2022/06/12/africa-ports-ships-maritime-news-13-june-2022/>
 (2022.07.17.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수요 호황 국면 마무리 진입²⁸⁾

-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및 운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해운기업이 호황기를 맞이하였으나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 Drewry가 발표하는 글로벌 항만 처리량 지수(Global Port Throughput Index)는 4월 기준 141.1p로 전년 동월 대비 1.5p 감소함
 - 중국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아시아 항만의 처리량이 감소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럽 항만 역시 처리량이 감소함
 - 또한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최근 몇 달 동안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분석함
- » 이 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점과 기업들의 재고 과잉 문제 등으로 화물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세계 주요 화주들의 과잉 재고로 생산활동이 정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 비용 등 물류관련 비용이 높아지는 점도 호황 국면의 마무리 신호로 보고 있음

28) Splash247(2022.07.11.) <https://splash247.com/demand-data-points-towards-the-end-of-the-wild-carrier-party/>(2022.07.18. 검색)



2) 양곡

① 6월 전 품목 수입단가 전년 동월 대비 12~48% 높은 수준 기록, 대미환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3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상승 전망²⁹⁾

» 6월 곡물 수입단가는 사료용 밀을 제외하고 전 품목이 전월 대비 상승함

- 식용밀(438달러/톤)과 채유용 콩(670달러/톤)의 수입단가는 각각 전월 대비 3.3%, 3.6% 상승함, 반면 식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412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6.7% 증가함
-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0.2% 소폭 하락한 334달러/톤을 기록함, 이외에 사료용 옥수수(374달러/톤)와 대두박(559달러/톤)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5.1%, 10.2% 큰 폭으로 증가함

» 3분기의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높았던 시기(22년 3월~6월)에 구입한 물량이 도입되고 대미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3분기 식용 수입단가지수는 184.8로 전분기 대비 1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료용 수입단가지수도 전분기 대비 12.5% 상승한 17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9)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 월보 7월호 (2022.6.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682/page/1\(2022.7.22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682/page/1(2022.7.22 검색))

3) 시멘트

① 환경부, 시멘트 업계와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³⁰⁾

»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시멘트 제조사 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임

* 통합허가란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임

-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배출량('19년 기준 24만 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됨
-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여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7.0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956\(2022.07.16 검색\)](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956(2022.07.16 검색))



4) 모래

① 한국골재산업연구원,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³¹⁾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함

-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임
-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실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음
-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2년~'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함

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07.11.),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943\(2022.07.16 검색\)](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943(2022.07.16 검색))

5) 석탄

① '22년 전 세계 석탄 수요 최고치 달성 전망³²⁾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경제 둔화 및 코로나19 위험 가능성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석탄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IEA는 석탄 시장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기록할 경우, 전 세계 석탄 소비는 8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지난 '13년에 기록한 최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근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석탄으로의 연료 전환 추진 및 인도의 경제성장이 석탄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함
- 특히 인도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전기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7% 이상 석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 조치로 인해 약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일부 석탄 생산 국가들의 증산 한계로 인해 석탄 수요 증가분이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있다고 판단함

32) 뉴스1(2022.07.19.), [https://www.news1.kr/articles/?4747027\(2022.07.20. 검색\)](https://www.news1.kr/articles/?4747027(2022.07.20. 검색))



6) 철광석

① 중국 경기침체 및 철강 생산 부진으로 철광석 가격 감소³³⁾

» 7월 8일 기준 북중국 철광석(Fe 62% 품위) 가격은 톤당 114.05달러로 전주 대비 2.40달러, 전월 대비 32.85달러 하락함

- 코로나 규제와 악천후로 중국 내수가 약해지고 재고가 쌓이면서, 중국 제철소들은 수십 개의 용광로를 공회전하는 손해를 감수하며 철강 생산을 줄이고 있음
-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와 탈탄소화 계획에 따른 중국 철강 생산 억제도 영향을 미침
- 특히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시마오그룹이 채권상환 누락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중국 부동산 업계가 침체되며 철광석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주요 철강 업체 대부분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3) 철강금속신문(2022.07.13.),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7/13/
PS010713010100301B0001.pdf(2022.07.18.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은美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른 하락세를 기록³⁴⁾

» 에너지원 공급망 위기에 따른 전력난 확산 및 주요국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 등 세계 경제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비철금속 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함

- 7월 2주차 전기동과 니켈 가격은 각각 전주대비 6.5%, 5.5%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같은기간 미달러인덱스는 107.96으로 전주 대비 1.21p 상승, 3주 연속 상승하면서 가격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미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억제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시장은 미연준이 7월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함

» 한편 니켈의 LME 재고량이 63,690톤으로 전주 대비 3.6% 감소, 10주 연속 감소세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됨

- 또한 중국의 6월 신에너지 자동차(NEV) 판매가 59.6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2.8%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배터리 시장확대에 따른 수요강세가 예상됨

34)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07.18.),
https://www.kores.net/komis/trend/
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2.07.19. 검색)



8) 목재

① 국립산림과학원, 삼나무 인공림 자원화를 위한 지역 연계 공동전략 마련³⁵⁾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950년대 이후 조성된 삼나무 인공림의 자원화 전략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함
-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곰솔, 편백 등 주요 인공림의 맞춤형 산림관리 전략체계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삼나무림의 후계림 조성, 탄소흡수 증진, 생산된 목재 자원의 활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눔
- 주요 주제로는 '라이다 등 첨단 산림 측정 장비를 활용한 삼나무 인공림의 임목 생장 및 형질 특성', '지구온난화 대응 난대권역 인공림의 맞춤형 임분 관리와 지속가능한 자원 생산 및 후계림 조성', '삼나무 목재 자원의 이용증진 및 활용 방안' 등이 토의됨
- 국립산림과학원은 난대 권역에서 생장이 단연 으뜸인 삼나무 인공림에 대하여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합심하여 삼나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경관과 산주의 산림소득 증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35)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2022.07.11),
[## 9\) 고철](https://nifos.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72719&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150&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UKFR_03_03&orGld=kfri(2022.07.11. 검색)</p>
</div>
<div data-bbox=)

① 국내 고철 가격 13주간 32.4% 하락³⁶⁾

- ▶ 국내 고철 가격은 올해 3월 셋째 주 역대 최고가인 710원/kg(중량A 품목, 영남권 제강사 현금 도착도 중심값 기준)을 기록한 이후, 13주간 가파르게 하락하여 7월 16일 기준 480원/kg 까지 하락함
- 주요 제강사들의 재고조정을 위한 고철 단가인하 및 입고제한으로, 고철 유통시장 재고소진이 둔화되고 평가손실액이 상승함
- ▶ 추후 국내 고철 가격의 향방은 상승 요인과 하강 요인이 모두 존재함
- 글로벌 고철 시장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튀르키예 고철 시장 가격이 7월 첫 주부터 3주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 고철 가격이 8월 중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글로벌 고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용선원가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락하고 있어, 튀르키예와 국내의 고철 가격이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36) 스크랩워치(2022.07.15),



10) 철재

① 상반기 철강 수출 물동량 전년 대비 감소³⁷⁾

»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철강 수출은 1,329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함

- 지역별로는 일본(-12.3%), 중국(-22.2%), 아세안(-16.9%), 대만(-31.9%), 인도(-8.9%), 중동(-8.4%), CIS(-43.3%), 아프리카(-6.9%)향 수출이 감소하였고, EU(+30.0%), 튀르키예(+23.0%), 북미(+7.6%), 중남미(+0.5%), 대양주(+27.5%)향 수출은 증가함
- 수출이 감소한 국가의 주요 감소 요인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자동차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따른 환경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 강화, 아세안, 대만, 인도, 중동, 아프리카의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 및 해상 물류 대란 영향, CIS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임
- 반면 수출 증가 요인은 유럽의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철강 생산 감소 및 수입 규제 완화, 튀르키예의 건설 및 제조업 경기 회복,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건설 경기 회복 및 수입 규제 완화, 중남미와 대양주 지역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원개발산업 호조가 있음
- 한편, 국내 주력산업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내수 판매와 수입 물동량은 증가함

37) 철강금속신문(2022.07.18),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7/18/PS010718010100101A0001.pdf>(2022.07.18. 검색)



11) 자동차

① '22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³⁸⁾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내수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수출 비중 확대로 내수 출하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120,490대를 판매함
 - 친환경차는 30,198대를 판매하여 역대 최초 월 3만 대를 돌파하였고,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의 25.1%를 차지함
- ▶ 수출은 친환경차 해외판매 호조와 고효율 효과를 활용한 수출 비중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180,884대를 기록함
 - 수출액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차 수출 확대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여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41.5억 달러)을 달성함
 -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44,434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24.6%를 차지함
- ▶ 생산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중국발 공급망 차질로부터 일부 회복되며, 전년 동월 대비 19.8%, 전월 대비 0.2% 증가한 307,048대를 기록함
 - 해외생산은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다소 완화되며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한 275,751대를 기록함

38)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2.06.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55&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07.11. 검색)

(단위 : 대, 백만 달러, %)

'22.5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연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전월비	동월비	1~5월
내수	1,440,786	124,803	620,849	120,356	120,490	550,635	0.1	-3.5	-11.3
수출	2,040,572	153,524	874,694	197,412	180,884	901,260	-8.4	17.8	3.0
(완성차 수출액)	46,465	3,492	19,552	4,396	4,153	20,417	-5.5	18.9	4.4
생산	3,462,499	256,333	1,488,845	306,462	307,048	1,450,684	0.2	19.8	-2.6
(부품 수출액)	22,776	1,818	9,644	1,941	1,957	9,915	0.8	7.6	2.8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2.06.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55&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07.11. 검색)



12) 잡화

① '22년 5월 국내 기계산업의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한 186억 9,600만 달러, 수입금액은 6.0% 증가한 124억 4,200만 달러를 기록³⁹⁾

- 5월 기계산업 수출금액은 전기기계업(-9.7%)을 제외한 일반기계업(+1.9%), 정밀기계업(+8.0%) 등 전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기계산업의 수입은 전기기계업(+10.0%), 정밀기계업(+11.3%), 금속제품업(+20.1%) 등 전 부문의 고른 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6.0% 증가함
- 5월 수출입 금액의 큰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5월 누적 기계산업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1.1% 감소함
- 수출 부문에서는 전기기계업(-9.0%)과 수송기계업(-4.2%)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일반기계업(-7.2%)과 정밀 기계업(-8.4%) 부문이 전년 동기간 감소함

(단위: 백만 달러, %)

'22년 5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2. 5				'22. 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8,696	10.0	12,442	6.0	89,417	-1.2	56,757	-1.1
일반기계업	4,501	1.9	3,956	1.0	22,601	4.8	18,157	-7.2
전기기계업	3,071	-9.7	2,436	10.0	15,255	-9.0	11,368	12.0
정밀기계업	1,592	8.0	2,521	11.3	80,08	2.6	11,623	-8.4
수송기계업	8,440	22.3	2,875	2.7	38,614	-4.2	12,674	2.8
조선	1,894	47.1	216	19.1	6,603	-30.8	920	11.9
금속제품업	1,092	35.1	653	20.1	4,939	20.3	2,936	9.5

39)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7월호(2022.7.11.),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2.7.22. 검색)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7월호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7월 1주차 국제유가, Brent, WTI, Dubai, Oman 모두 하락⁴⁰⁾

≫ 7월 4일부터 7일까지 Brent, WTI, Dubai, Oman의 유가 주간 평균 가격은 전주(6월 27일~7월 1일) 대비 배럴당 각각 9.75, 8.81, 6.60, 6.53달러 하락함

-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불안의 지속과 미국의 이란 관련 추가 제재 등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베네수엘라 공급 증가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하락했으나 미국 석유 제품 재고 감소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로 하락폭은 제한됨

(단위: US\$/bb)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주간 평균 가격			일일 가격			
	6월 5주 (6.27~7.1)	7월 1주 (7.4~7.7)	전주 대비	7월 4일(월)	7월 5일(화)	7월 6일(수)	7월 7일(목)
Brent	115.15	105.40	-9.75	113.50	102.77	100.69	104.65
WTI	109.06	100.25	-8.81	-	99.50	98.53	102.73
Dubai	111.44	104.84	-6.60	108.38	111.07	101.73	98.19
Oman	111.46	104.93	-6.53	108.54	111.15	101.75	98.29

주: 7월 4일은 미국 독립 기념일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유가(2022.06.10.),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6.17. 검색)

② LG화학, 충남 대산에 연산 5만 톤 규모 수소공장 건설⁴¹⁾

≫ LG화학은 '2050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화학 열분해를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면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 LG화학은 충남 대산 사업장에 '24년 2분기까지 연산 5만 톤 규모의 수소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수소 직접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 공장에는 메탄가스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정으로 확보 가능한 부생 메탄을 원료를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수소는 다시 NCC 열분해 연료로 사용됨

4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유가 (2022.07.08),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7.14. 검색)

41)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 동향 (2022.06.20.),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354(2022.07.14. 검색)



» 석유화학산업은 NCC 공정시 메탄을 사용하면서 탄소배출이 발생하는데, 고순도 수소 사용 시 기존 대비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큼

- 석유화학산업은 고온에서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의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데, 대부분 메탄을 열원으로 사용하여 탄소 배출이 발생함
- 반면 고순도 수소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수소가 석유화학 연료로 사용될 경우 기존 대비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큼

» LG화학은 '25년까지 NCC 공정의 수소 등의 청정연료 사용 비중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임

- LG화학 수소 공장은 '24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하며, 수소 공장 본격 가동시 NCC 공정에 사용되는 메탄을 수소로 대체하면서 연간 약 14만 톤 수준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바이오 원료 생산에도 수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수소 공장의 생산성 검증 및 탄소배출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증설을 검토할 계획임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2. 7. 29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